

새만금청, 새만금사업 국민·기업 의견 수렴

국민, 주차·안내시설에 만족...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요구 기업, 세제혜택 등에 긍정적...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요구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기업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고,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조사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2,000명의 국민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새만금청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국민 대상 만족도와 3대 허브특화사업(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 평가, 미래전략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었다.

국민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새만금 방문 시 주차 공간(59.1%), 도로 확장 및 포장 상태(56.7%), 교통안전 시설(49.1%), 관광지 안내시설(47.5%), 주요 관광지 청결 상태(48.7%) 등에 대

해서는 만족했지만 대중교통 노선부문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26.1%)를 보여 새만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의 3대 허브특화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높지 않았으나(24.8%),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85.7%)했으며, 새만금 사업에 우선적으로 유지해야 할 투자 업종 조사에서 관광레저산업(27.8%), 에너지 산업(21.3%), 첨단 농업(18.9%)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3대 허브특화 사업이 우선 유지사업과 관련도가 높다고 평가되었다.

3대 허브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새만금 사업 추진 동력 확보(33%), 지역 주민·기업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29.0%), 관련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27.1%) 등의 측면에서 긍정

적이거나, 관련 인프라 구축이 미비(28.8%)하고 대기업·중견기업 등 관련 산업 유치 독식,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 훼손(각 25.7%)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녹색성장 도시(46.1%), 첨단 비즈니스 기능을 갖춘 글로벌 국제도시(15.9%)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새만금을 지속 가능한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해 높게 생각했다.

기업 대상으로는 새만금 투자 의향 및 투자 환경의 강점과 약점, 필요한 인센티브 등을 조사했다.

국내에 신규 혹은 추가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42.0%) 중 다수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82.5%), 기업들이 생각하는 새만금

투자 환경의 강점은 저렴한 토지가격(37.0%), 세금 등 인센티브(34.0%),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33.0%) 등이 뽑혔다.

새만금 투자 환경의 약점으로는 교통 및 생활 인프라 부족(64.0%), 불리한 지리적 조건(27.7%) 등을 꼽았다.

새만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집중해야 할 인센티브는 생활 편의시설 확보(82.3%), 쾌적한 정주 환경(77.7%), 고속도로 확충(71.0%), 대중교통 노선 확충(70.7%), 전문인력의 확보(65.0%) 등의 의견이 많아 생활 편의·정주환경·교통·인력 등 생활 거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이번 인식 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새만금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생각이다"며,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건설환경 조성 기여한 공로’

통일건설 배정석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우리나라 건설 산업 발전에 공헌한 건설인들의 자부심과 공기를 고취하고 대한민국의 건설



한 사후관리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건설관련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전문건설업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건설현장의 문제점 개선과 예방을 도모하여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임근홍 회장은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도내 전문건설업체인 (유)통일건설, 배정석 대표가 건설산업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에 따르면 배정석 대표는 원리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정도경영의 신념을 갖고 30여년간 전문건설업에 종사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철저히 품질관리와 건설사공 및 철저히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은 지난 26일 국무총리 등 정부관계자와 건설관련단체장과 건설업계 임직원 수천여 명이 참석하여 서울 건설회관 2층 COP트홀에서 개최되었다. /김옥기 기자



김제농협, 여성농민 조합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지난 26일 본청3층 대회의실에서 여성농민 조합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였다.

이날 열린 이동상담실은 82명의 여성 조합원이 참석하여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적 불편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었고 소통(감정이해) 문화강좌 등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정용 조합장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전문가와 만나 생활 속 불편과 고충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 이동상담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업인 복지와 삶의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중소기업계, “지불능력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해야”

2025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지불능력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의견을 발표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은 경영능력, 노동생산성, 업종의 재산성에 영향을 받는데 노동생산성에 기인한 지불능력 차이까지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구분 적용 방법을 두고 상향식·하향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G7, OECD 평균, 그리고 구분 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장은 "요즘 정말 힘들다는 기업인들이 많다. 중소기업 80.3%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을 느낄 정도다. 업종마다 다른 특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상식이 올해는 꼭 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한전 장수지사, '산업안전보건의 달' 전기설비 안전점검

한국전력공사 장수지사(지사장 장형석, 노조위원장 김재두)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장수지역 복지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날 장수지사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전선 및 전주 등의 전력설비 △고객 소유 변압기 등 설비

등을 점검하였으며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했다.

또한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콘센트 30개, 안전커버 120개 등을 전달했다.

앞으로도 장수지사는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간 동안 전통시장, 어린이집



등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개공, 익산 부송4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사업 승인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익산 부송4지구 공동주택 부지에 추진하는 A블록 민간참여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익산 부송4지구 A블록 민간참여 공공임대아파트는 익산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총 300세대(전용면적 59㎡), 지상20층 규모로 건립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작년 12월 사업자(주)신강건설외3개사, 도내업체 100%를 선정했으며,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각



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해당 임대아파트는 인근에 대형마트, 체육센터, 공원, 도서관, 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객맞춤형 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경진원, 소상공인희망센터 신규 입주업체 모집

도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전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이하 '희망센터')에서는 28일부터 7월 11일 까지 신규 입주업체를 모집한다.

금번 모집 규모는 총 5실(14㎡ 3실, 30㎡ 2실) 내외이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단, 사행성 조장업종과 금융·보험·주점·숙박·유흥업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서류 및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예비창업자)는 기본 1년 계약 후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입주할 수 있으며 △사무공간 △사업화 지원 △맞춤형 컨설팅 △역량 강화 교육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